

UC, 등록금 인상 정책 연장 논의 인상률 상향에는 부정적...11월 이사회 표결 계획

UC 이사회가 앞으로 몇 년간 신입생 등록금 인상 정책을 지속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UC 행정당국이 제안한 연간 최대 인상률 상향(5%→7%)에는 상당수 이사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UC는 2022-23학년도부터 신입생 등록금을 매년 3.55% 인상하고, 해당 학생들이 6년 내 졸업하면 그 기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는 '코호트 등록금 안정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덕분에 학부 신입생은 입학 시 확정된 등록금을 졸업 시점까지 유지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의 경우 2023년 가을 입학자는 연간 1만4,436달러를, 2024년 가을 입학 예정자는 3.4% 오른 1만4,934달러를 납부한다. 유학생 및 주 외 거주 학생은 이보다 훨씬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

UC 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코호트 등록금 정책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2027-28학년도 이후에도 연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존 등록금 인상 방식은 모든 학년 학생들에게 동시에 부담을 줬지만, 현재 방식은 학생과 가족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학교 재정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리처드 라이브 전 UC 이사회 의장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데 왜 바꾸려 하는가"라며 인상률 상향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 UCLA 캠퍼스, 사진=AP

UC 학생연합회 아디티 하리하란(UC 데이비스 4학년) 회장은 "2026-27학년도 이후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코호트 정책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등록금 인상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UC에 진학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UC 측은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UC 재정 지원 부학장 손 브릭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캘그랜트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UC는 등록금 수익의 45%

를 재정 지원금으로 적립해 학생들의 교재비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UC 재무총책임자(CFO) 네이션 브로스트롬은 "이 정책으로 3억7,500만 달러의 신규 재원이 확보돼 교수-학생 비율 개선과 학생 서비스 강화에 쓰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 연구비 삭감과 주정부 예산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 자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간 최대 인상률을 7%로 상향 ▶불가연동 인상에 1% 추가 인상 ▶재정 지원 적립률을 45%→35%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사회 다수는 7% 인상률 상향안에 부정적이다. 마리아 앙기아노 부의장은 "7% 인상은 더 이상 '온건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의 당연직 위원인 엘레니 쿠날라키스 캘리포니아 부지사 역시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다시 논의해야지, 지금부터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보인 제이 서스 이사는 "연방 정책 변화와 재정 위협이 UC 시스템에 진정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유연한 인상 정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UC는 제임스 밀리컨 신임 총장이 8월 취임한 뒤 의견을 수렴해 11월 이사회에서 공식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닛 레일리 이사회 의장은 "현재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입 부정 주범 다시 대입 컨설팅 고객에 범죄 이력 사전고지 조건

전국을 뒤흔든 대학 입학 부정 스캔들의 주범 릭 싱어가 이전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단, 법원은 고객들에게 범죄 이력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싱어는 2023년 엘리트 대학에 자격 미달 학생들을 운동 특기생으로 둔갑시켜 입학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공갈 공모, 자금 세탁 공모, 정부 사기 공모, 사법 방해 등의 연방



▲ 윌리엄 릭 싱어, 사진=AP/뉴스시스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바시티 블루스' 입학 비리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형기를 마친 뒤 싱어는 ID 퓨처 스타라는 새로운 대학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2018년 싱어는 수사 당국과 협력하기 시작해 수백 건의 통화와 회의를 녹음했으며, 이 자료는 2019년 3월 수십 명의 부모, 운동 코치 등이 체포되는 데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스캔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인사에는 '폴 하우스' 배우 로리 러플린과 패션 디자이너였던 남편 모시 모 지아놀리, '위기의 주부들' 배우 펠리시티 허프먼 등이 있다. 예일대, 스탠퍼드대, 조지타운대, UCLA 등 명문 대학의 일부 운동 코치들도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보스턴 수사당국은 원래 증권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한 기업 임원이 예일대 축구 코치가 현금을 대가로 딸의 입학에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예일대 코치는 싱어를 지목했고, 그의 협조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개원 20주년 기념>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65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800부터

Free 임플란트 상담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